

아모스서의 난해구절(2:6b, 2:7c, 4:3b, 8:5)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주석적 고찰

우택주*

1. 들어가는 말

번역작업은 면밀한 주석적 고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석자의 주석 방법론과 해석적 지평이 제한적일 경우, 그로부터 파생하는 의미의 세계 또한 당연히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문 해석에 교리나 신학적 경향성이 주석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제한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본문의 주석 작업은 가능한 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면서도 동시에 신학적 경향이 압박하는 의미 제약의 네트워크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과학적 접근법은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문헌 분석 자체만으로 한계에 부딪친 해석적 과제를 푸는 데 참신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는 본문 전수과정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오류와 오해를 발견하여 정정함으로써 현재의 성서 본문이 우리의 신앙공동체와 세계에 그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개연성 있는 본문이 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아모스서는 본문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여 다른 성서 본문에 비해 훼손도가 아주 적은 예언서로 알려진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서기관들이 본문을 오해해서 읽거나,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해석하여 잘못 필사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구절이 전혀 없지는 않다. 우리는 그런 실례 중에서 네 구절, 즉, 2장 6b절과 7c절, 4장 3절, 8장 5절을 선택하였다.²⁾ 이 중에 4장 3절(“하르몬”으로 읽히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옮기고 있음)을 제외하고는 대개 본문 주석상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왔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W. O. E. Oesterley and T. H. Robinson,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The Macmillan, 1934), 368. 그럼에도 불구하고 2:7; 3:12, 14; 4:3, 5, 9; 5:6, 26; 6:2, 10; 7:2; 8:3; 9:1의 구절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그리고 마소라 본문과 크게 상이하지는 않지만 칠십인역이 도움이 되는 곳은 2:16; 3:5; 4:7; 5:9; 6:12; 8:4 등이다.

2) 이 구절들의 논의는 대부분 필자의 스승인 Dr. Marvin Chaney(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and 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독창적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다. 이 연구는 이 네 구절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의 번역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오류를 밝혀서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아모스 2장 6b절(//8장 6a절)

MT על־מָכְרָם בְּכֶסֶף צְדִיק וְאֵבִיר וְזָרָה בְּעֶבֶר וְנִלְיָם

LXX ἀνθ' ὧν ἀπέδοντο ἀργυρίου δίκαιον καὶ πένητα
ἔνεκεν ὑποδημάτων

NRSV Because they sell the righteous for silver and the needy *for a pair of sandals*

NJPS Because they have sold for silver, Those whose cause was just, And the needy for a pair of sandals.

TEV They sell into slavery honest people who cannot pay their debts, the poor who cannot repay even *the price of a pair of sandals*.

『개역개정』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공동번역』 죄 없는 사람을 빚돈에 종으로 팔아 넘기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 넘긴 죄 때문이다.

『표준개정』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어 번역과 우리 말 번역들은 이 구절을 나름대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RSV, 『개역개정』과 『표준개정』은 이 구절을 일반적인 인신매매 상황으로, NJPS(유대인 성서번역)는 돈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타락한 법정의 상황으로, 그리고 TEV와 『공동번역』은 모종의 채무관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상황을 탄핵하는 장면으로 읽고 있다. 번역들이 다양한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지식이 막연한 상태에서, 본문이 지시하는 상황을 그 세계와 연계시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리 언급해두고 싶은 것은 성서본문을 해석할 때, 문학적 분석은 가능한 한 사회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연관성은 다시 본문에 사용된 언어들 속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 문학, 사회, 언어 - 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갈 때 충분하고 적절한 본문 이해와 번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쿠트(R. B. Coote)에 의하면, 아모스 2:6b-8의 신탁은 8세기의 북 왕국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단에 치달은 사회경제적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있다.³⁾

체이니(M. A. Chaney)는 이 현상을 국가가 주도하는 집약농업정책(a policy of agricultural intensification)의 과급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⁴⁾ 이 집약농업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고대 농경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되는 위계질서의 사회라는 사실이다.⁵⁾ 그리고 그런 위계질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경제적 요소 두 가지는 토지와 채무이다. 채무 제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농부들이 흉년을 당해 불가피한 선택사항으로 남게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일시적 구제 장치로 활용되던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토지 소유권이 도시에 거주하는 엘리트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장치로 변했다.⁶⁾ 채무는 잉여 토지 생산량을 이차적으로 착취하는 제도적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모스 2장 6b절부터 8절까지의 맥락을 이런 정치 경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현재 이 구절들은 채권자-빚-채무자 관계의 어떤 특정한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단락의 어느 한 구절도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곳의 언어는 모두 법정적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언어(language of advocacy)들이다. 그 언어들은 한 집단(피고)이 다른 집단(원고)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수사적 언어이다. 그런 수사법은 양극적(polarize)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천상회의의 판단 결과를 전달하는 아모스는 가난한 채무자들을 의롭다(רַיָּים)고 선언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쥔 채권자들에게는 불의하다(עוֹרָר)고 선언한다. 물론 이런 선언은 실제 사회의 법정 판결과는 정반대이다. 실제 사회에서는 힘 있는 채권자들을 의인으로, 가난한 채무자는 죄인으로 판결하였다. 아모스는 현실 사회의 판결과 정면으로 맞서 하늘회의 결과를 공언한다. 따라서 그의 수사법은 각 마디에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 함께 담아서 표현하는 방식(multiple entendre)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 제도가 우리가 관심하는 이 구절의 직접적인 배경이란 측면은 이제껏 어

3) R.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Philadelphia: Fortress, 1981), 36.

4) M. A. Chaney, "Bitter Bounty: The Dynamics of Political Economy Critiqued by the Eighth-Century Prophets," Robert L. Stivers, ed., *Reformed Faith and Economic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15-30; M. A. Chaney, "Whose Sour Grapes? The Addressees of Isaiah 5:1-7 in the Light of Political Economy," *Semeia* 87 (1999) 105-122; 우택주, "8세기 문서 예언을 형성시킨 결정적 요인들," 『구약논단』 9집 (2000), 150-161; 우택주, "자랑을 조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8세기 유다의 집약농업정책과 미가의 심판신탄 (2:1-11)," 『복음과 실천』 32집 (2003), 65-86. 이를 대토지화 정책(a policy of latifundialization)이라고도 부른다.

5) G. Lenski and J. Lenski, *Human Society: a Macrosociological Perspective*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97), 185.

6) B. Lang, "Social Organization of Peasant Poverty in Biblical Israel," *Monotheism and the Prophetic Minority* (Sheffield: Almond Press, 1983), 114-127.

면 해석자도 간과하지 못했고 또한 그 측면을 해석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적이 없다. 통상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상반절)”와 “신 한 켈레를 받고(값에) 가난한 사람을 판다(하반절)”는 표현이다. 상반절과 하반절은 평행구이므로, “은을 받고”와 “신 한 켈레를 받고”가 동의적이다. 히브리어로 상반절 브케셉(בְּקֶסֶף)의 전치사 브(בְּ)는 하반절의 전치사 바아부르(בְּאִבּוּר)와 구문상 평행하다. 여기서 문제는 전치사 브(בְּ)의 의미이다. 보통 마카르 브(בְּמָכַר)와 카나 브(בְּכָנָה)는 각각 “팔다”와 “사다”를 표현한다. 창세기 37:28(요셉을 파는 장면)에서 이 전치사(בְּ)는 은 이십 개를 “교환조건으로(in exchange of)”란 의미를, 신명기 21:14(여자 포로의 처리)에서는 “돈을 받고”란 표현에 사용되고 있어서 역시 “교환조건으로(in exchange of)”란 의미로 쓰였다.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란 요엘 3:3[히4:3]도 술과 소녀를 교환하는 행위에 이 전치사를 사용한다. 나훔 3:4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에서 마카르 브(בְּמָכַר)가 사용되고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들(요셉, 여자 포로, 소녀/기생, 앗시리아에게 열세인 여러 나라)이 일관되게 주어와 비교해 볼 때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나 집단이란 점이다. 아모스 8:4b에서 사용된 카나 브(בְּכָנָה)의 경우도 대부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창 33:19; 47:19; 삼하 24:24; 왕상 16:24; 사 43:24; 렘 32:25, 44; 대상 21:24).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가 “때문에, 위하여(on account of, for the sake of)”가 아니라, “교환조건으로, 수단으로(in exchange of, by means of)”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달리 “함께, 으로(with)”, “위하여, 때문에(for, on behalf of)”로 해석한다면, 돈과 신발이 매매 행위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다(Gordis). 그럴 경우, “신발 때문에”란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엘리트 채권자들의 신발 한 켈레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켈레와 같은 아주 적은 금액 때문에 종으로 팔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구절은 의미상 불확실하며 경제적으로도 개연성이 없다⁷⁾.

이상의 논의는 하반절에서 구문상 평행하는 전치사 바아부르(בְּאִבּוּר) 역시 이와 대등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유도한다. 전치사 바아부르(בְּאִבּוּר)의 사전적 의미는 “때문에(on account of)”이다. 이 의미는 앞서 지적했듯이 신발 한 켈레가 매매 행위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치 않다. 오히려 “신발 한 켈레를 교환조건으로(혹은 수단으로)”가 적절하다. 그럴 경우, 바아부르(בְּאִבּוּר)는 브(בְּ)와 아부르(אִבּוּר)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 의미 영역이 확보된다. 이것이 정당하다면, 이 합성어는 상반절의 전치사와 잘 어울리면서도 그 의미를

7) E. A. Speiser, “Of Shoes and Shekels,” *BASOR* 77 (1940), 15-20.

구체화시켜준다.⁸⁾ 아부르(אָבּוּר)는 히브리어에서 2회 사용되었으며(수 5:11, 12) 의미는 “수확, 산물, 추수, 작물”이다. 특별히 아카드어 에부루(ēbūru)는 계약문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로서 채무 용자 기한이 만료되는 시기인 추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⁹⁾ 이런 의미를 적용하여 이 구절을 다시 읽는다면, “돈을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가난한 자를 팔고, 신발 한 켤레(로 보증을 선) 추수를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궁핍한 자를 팔며”가 된다. “신발 한 켤레의 추수”란 룻 4:7에서 알 수 있듯이 신발을 거래 상대방에게 벗어줌으로써 소유권이 전이나 무르기를 확정짓는 관행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은 빚을 얻은 궁핍한 자가 채권자에게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다음 해 가을 추수에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계약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은”과 “곡식”은 빚제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

한편, “신발”을 의미하는 나알라임(נָאֲלָאִים)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표현한다. 첫째, 문자 그대로의 신발과 같은 아주 사소한 액수의 빚을 뜻한다. 둘째, 상징적 의미의 신발로서 계약관계를 지시한다. 셋째, 쌍수로 표현된 이 단어는 동사 나알(נָאֵל), 즉 “빚장을 지르다” 혹은 “결쇠로 조이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토지 합병(land consolidation)을 위해 소유주가 다른 두 지역의 밭을 한데로 묶는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 타르굽과 라쉬(Rashi)는 이 동사가 쌍수형으로 “빚장을 지르다”란 표현을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Hayes). 이 사야 5장 8절은 이런 형태의 토지 합병을 분명하게 진술한 바가 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볼 때, 아모스 2장 6b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모두 채무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엘리트 지배층의 행위를 함축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여기서 8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농경사회 구조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가난한 소작농이 빌린 채무는 일단 은(당시의 화폐)으로 대부(loan)를 얻고, 다음 추수기를 기한만료 시점으로 삼고 그 때에 농부가 추수할 여러 가지 농산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상황에서 “궁핍한 사람”은 채무를 진 가난한 농부들을 일컫는다. 그들이 얻는 채무는 상업용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용자(survival loan)이었으므로 출애굽기 22:24와 레위기

8) W. R. Harp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Edinburgh: T. & T. Clark, 1905), 52.

9) CAD E (1958), 16-20.

25:35-38의 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고집하여, 현금과 작물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음 해 추수기에 채무를 변제 받을 시기가 되면 농산물은 공급과잉으로 가격은 최하점에 달하므로 채권자는 손쉽게 실질적인 고리(de facto interest)로 이득을 챙겼다.

일단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가 곤란한 농가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이를 지방법정에 고소한다. 엘리트의 권력에 매수된 법정에서 사법적 책임이 있는(“죄인” guilty party) 가난한 농부에게 저당 잡힌 담보물의 소유권 상실 foreclosure)을 선고하고 합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저당물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러나 엘리트가 장악한 인간 사회의 법정과 달리, 하늘의 법정은 계약 문서의 법적 문구(letter)가 아니라 계약의 정신(spirit)에 따라 판결한다고 아모스는 선언한다. 아모스는 채무자를 이제 “죄 없다(פְּטוּרִים innocent)”고 선언한다. “은(대부금)”으로 빌리고 “신발로 서약한 추수”로 갚아야 할 채무 때문에 “죄 없는 궁핍한 자(the innocent indignant)”는 저당물 회수권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다른 채권자에게로 “팔려감”으로서 모든 인간적 유대관계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들의 속량(redemption)조차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¹⁰⁾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최고 판결자이신 야웨 하나님은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판결하고 중재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돈을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의인을,
한 쉼의 신발로 계약한 추수를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궁핍한 자를 팔며

3. 아모스 2장 7c절

MT וְאִישׁ וְאָבִיו יֵלְכוּ אֶל-הַנְּשֵׂרָה לְמַעַן חַלֵּל אֶת-שֵׁם קֹדְשִׁי
 LXX καὶ υἱὸς καὶ πατὴρ αὐτοῦ εἰσεπορεύονται πρὸς τὴν αὐτὴν παιδίσκην ὅπως βεβηλώσωσιν τὸ ὄνομα τοῦ θεοῦ αὐτῶν
 NRSV father and so go in to the same girl, so that my holy name is profaned
 TNK Father and son go to the same girl, and thereby profane My holy name
 TEV A man and his father have intercourse with the same slave woman, and so profane my holy name.

『개역개정』 아버지¹¹⁾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10) 참조, Lang, “Social Organization of Peasant Poverty in Biblical Israel,” 484-486.

『공동번역』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표준개정』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구절의 전반부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는 유명한 난해구절에 속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의 설명들은 이 구절이 처음 보듯이 자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변해 준다. 이 구절을 읽는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 번역들은 한결같이 주어를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 남자”에 해당하는 이쉬(אִישׁ)는 특별한 선행사가 없을 경우 문맥에 따라서 분배적(distributive)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각 사람 혹은 사람마다(each man)”를 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 주어구는 “각 사람과 그의 아버지”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번역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을 하지 않은 채 우리말 어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읽고 있다. 그것은 본문의 표현법을 정확히 담고 있지 않은 채 선입관에 좌우된 부주의한 번역이다. 물론 우리 말 번역에 이런 실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4b의 우리말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어법의 특성상 히브리어 본문의 2:4a가 2:4b보다 뒤에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אֱלֹהֵי יְהוָה)이 천지(אֶרֶץ וְשָׁמַיִם)를 창조하신 때에(2:4하/J)
천지(הַשָּׁמַיִם וְהָאָרֶץ)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2:4상/P)¹¹⁾’

그러나 이런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의 이 구절은 “아들과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로 어순을 바꾸어 번역해도 좋을 종류의 구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평범한 표현이지만, “한 사람과 그의 아버지”는 두 세대를 표현하는 특이한 표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이제까지의 번역들이 시종일관 이 단어를 “한 젊은 여자” 혹은 “한 여인”으로 번역할 때, 그 여인을 “동일한 한 명의 여인”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인”으로 번역된 명사의 뒤나

11)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과 앞뒤 문맥에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 이 구절은 “(הַשָּׁמַיִם וְהָאָרֶץ)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2:4상/P).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אֶרֶץ וְשָׁמַיִם)를 창조하신 때에(2:4하/J)”로 순서를 바꾸어 읽는 것이 좋다. 여기서 2:4상의 천지와 2:4하의 천지는 우리말에서 동일어순으로 되어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순서가 도치되는 교차대구형으로 구사되어 있다. 2:4하(J)의 “땅과 하늘”은 2:4상(P)에서 “그-하늘과 그-땅”으로 교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 어느 곳에도 “동일한 한 명의”란 의미를 표현한 형용사가 없다. 만일 이 명사 앞에 붙은 정관사를 번역한다면, 다른 선행사가 없으므로 독자들이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그 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로 학자들은 “그 여자”를 마르제악 잔치의 여주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¹²⁾ 그러나, 이곳의 여인은 크데샤 (קִדְשָׁה 통상, 성전창녀로 번역하는 단어)로 불리지 않으며,¹³⁾ 또 이 구절은 어떠한 제의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¹⁴⁾ 따라서, 이 정관사를 “동일한 한 명의 여자”로 번역할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현재 번역들은 적절치 못하며 부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구절 읽기에 의문점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증거는 남녀의 성교(sexual intercourse)에 동사구 엘레쿠 엘(לְכֹכְוּ)을 사용하는 데 있다. 동사 *hālak*(הָלַךְ)은 히브리 성서에서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쓰이는 경우가 이곳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성교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동사는 *bô*(בָּוּ)이다. 폴(S. Paul)은 이 경우에 관한 *hālak*의 용례와 해당 의미의 부족을 에어리히(A. B. Ehrlich)가 설명하는 독일어 동사 *einlassen* (let in, admit, agree to, go into)와 히브리어 의미와 동일한 어투의 아카드어 구문 *ana X alāku*를 근거로 의미의 확대를 모색하였다.¹⁵⁾ 이에 대해 브론츠니크(N. M. Bronznick)는 폴이 근거구절로 제시한 민 22:13과 잠 1:11에서 *hālak* 동사가 *’el* 이 아닌 *’et*나 *’im* 과 함께 쓰이고 있다는 문제와 그 두 구절은 성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설득력 있게 반박한다.¹⁶⁾ 브론츠니크는 이와 달리 *hālak* 동사가 *bô* 동사와 의미상으로 환유적인 관계(metonymic relationship)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hālak ’el* (going into)을 *bô ’el*(coming into)와 동의어라고 주장한다.¹⁷⁾ 그리고 후자(*bô ’el*)를 사용한 용례를 창세기 16:2, 30:3, 38:8, 사무엘하 16:21로 제시한다. 그러나 브론츠니크의 논지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coming”과 “going”의 의미 교환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면 *hālak ’el*이 용례가 구약성서에 단

12) H. M.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Leiden: Brill, 1984), 17-36; R. Gordis, “Studies in the Book of Amos,” S. A. Baron and J. E. Barzilay, eds.,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Jubilee Volume (1928-29/1978-79)* (New York: American Academy for Jewish Research, 1980), 216; A. Weiser, *Die Prophetie des Amos* (Giessen: Töpelmann, 1929), 141; 그러나, 다른 견해로 Taek-Joo Woo, “The Marzeah Institution and Rites for the Dead: A Comparative and Systemic Stud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Eighth Century,”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98), 151, 172 n 40을 보라.

13) 성전창녀의 존재에 관한 의구심에 대해서,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에 성전창기가 존재했는가,” 『구약논단』 10 (2001)을 보라.

14) Paul, Shalom M.,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Amos*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1), 81.

15) S. M. Paul, “Two Cogniate Semitic Terms for Mating and Copulation,” *VT* 32 (1982), 492-493.

16) N. M. Broznick, “More on *HLK L*,” *VT* 35 (1985), 98.

17) Broznick, “More on *HLK L*,” 99.

한번밖에 없다는 사정을 해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보통 출애굽기 21:7-11의 율법을 위배하는 상황으로 이해한다. 그 조항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으로 팔린 딸은 주인집의 아버지나 아들이 각각 자신의 섹스 파트너로 삼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한 명의 여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아모스가 이런 율법적인 규정을 어긴 비윤리적인 성적 타락상을 고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נַעֲרָה)”은 “채무 노예(נַעֲמָן)”나 “창녀(נַזִּירָ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히브리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갑자기 엘리트 채권자가 채무를 진 소작농을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의 목록(2:6b-8) 속에서 느닷없이 부자간에 저지르는 성 문란 행위를 예언자가 고발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런 읽기는 앞뒤의 맥락과 순조롭게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여인(נַעֲרָה)”이란 단어가 신탁의 내용 전개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본문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다. 우선 이제까지의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의미 단락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구절은 민족들의 심판 신탁을 열거하는 신명기역사가가 작성한 문학적 틀 속에서 위치하여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신탁을 거론하는 서두(“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6a)로 시작하는 2장 7b절은 8세기의 아모스가 직접 선포한 심판신탁, 2:6b-8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타락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절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연관하여 읽어야 하는 것이다.¹⁸⁾

이 구절의 새로운 읽기는 모호한 단어 “여인(נַעֲרָה)”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에게로 가다”를 뜻하는 할라크 엘(לָלַךְ אֵלַי)을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나아라(נַעֲרָה)는 히브리성서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남성명사 나아르(נַעַר)의 여성형이다. 이 단어가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서기관이 선입관을 갖고 그 의미를 예단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모든 언어는 동형이의어(homonym)를 갖고 있다.¹⁹⁾ 히브리어도 예외가 아니다. BDB는 구약성서에서 나아르(נַעַר)의 동형이의어가 동사로도 사용된 증거를 알려준다. 그 동사는 “흔들어 비우다, 흔들어 털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의 논의에 적절한 성서적 전거는 느헤미야 5:1-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느헤미야 5장은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의 활동을 친-페르시아적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18)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36.

19) 우리말에서 “배”는 과일, 선박, 신체중심부, 갑절 등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

로 선전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로 파송을 받은 관리였다. 그는 유대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자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이전이나 박탈당한 소유물들을 원 주인에게 반환하라고 선언한다. 1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부르짖음(צעקה)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던 사회경제적 착취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연상시킨다(참조, 출 3:7). 2절의 “많다(רבים)”는 비평장치의 제안대로 “저당 잡히다(ערכים)”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우리의 밭과 우리의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도다”(5절)란 구절에서 “남의 것(לאחרים)”은 비평장치의 칠십인역의 읽기처럼 “귀족들의 것(לחרים)”으로 읽기를 제안한다. 현재 공동체가 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엘리트 지배층과 농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הנמכרים) 형제를 ... 도로 찾았거늘(קנינו)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8절)에서 팔고(מכר) 사는(קנה) 행위묘사는 아모스 단락(2:6상//8:4하)과 동일한 어휘를 사용한다. 10절은 “돈(כסף)과 양식(דגן)”을, 11절의 “포도원, 감람원, 집들”은 농경사회의 다양한 범주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이어서 “돈, 양식, 새 포도주와 기름”은 고대 팔레스틴의 화폐 단위와 3대 농산물을 지칭한다. 느 5:13은 특히 우리가 관심하는 동사 나아르(נער)를 Qal 동사형, Piel 동사형, Qal 수동분사형으로 변형시키면서 세 번이나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וְאֵלֶּיךָ יָשָׁב וְאֶת־כֹּל־הָאִשׁ אֲשֶׁר
לֹא־יָקִים אֶת־הַדֹּבָר הַזֶּה מִבֵּיתוֹ וּמִיָּגְעוֹ וְכִכָּה יִהְיֶה נְעוּר וְרַק

내가 옷자락을 털며(נערתי)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도 또한 이와 같이 털어 버리실지니(ינער)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נעור) 빈손이 될지로다.

이 구절은 정확한 인과응보의 원리(measure for measure)를 표현한다. 만일 너희가 저당(물 회수)권 상실에 이르는 관습을 중지하고 이전의 상실된 저당권을 원 소유주에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물, 상속받은 것이든 획득한 것이든, 소유권 상실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무일푼으로 만들게 하실 것(foreclosed and propertyless)이란 의미이다. 특히 동사 나아르(נער)가 세 차례 사용될 때 그 의미는 단순한 “털어버림”이 아니라 “저당권 상실(foreclosure)”을 표현하는 전문용어로 쓰였음이 분명하다. 저당권 상실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로 잡히고 대부를 얻은 후 기한 내에 그것을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 법정은 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원래 소유주의 권리상실을 선언하고 대부를 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

을 이양하여 주는 법정 경제용어이다. 동사 나아르(נָעַר)가 ‘저당권을 상실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동사의 여성형 나아라(נָעַרָה)로 동사어근의 추상적 의미를 만들어 사용했다면,²⁰⁾ 많은 해석자들이 “여성”으로 오해한 이 단어가 아모스서의 이 단락에서 지녔을 본래적 의미는 “저당권 상실 혹은 떨쳐버림”이라고 해야 옳다. 본문을 읽었던 서기관들은 아마 자음 넷으로 구성된 나아라(נָעַרָה)를 읽을 때,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단어인 “여성”으로 손쉽게 읽는 오류를 범했을 것이다. 그러한 오류는 흔한 것이고, 또 그 읽기가 의미전달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이후의 서기관들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현재의 “여인”을 “저당권 상실 혹은 떨쳐버림”으로 고쳐 읽는다면 남아 있는 과제는 동사구 엘레쿠 엘(לָכּוּ אֵל)이다. 현재 동사(לָכּוּ)는 칼 능동형으로서 엘레쿠(לָכּוּ) “그들은-가다(they go)”이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저당권 상실로 갔다”는 능동표현은 의미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본문 필사상의 자음변형을 가정하여, 동사를 히필 능동형으로 읽어보면 올리쿠(לָיְכוּ) “그들은 가져오다(they bring)”가 된다. 이 때, 본문의 주어는 아모스가 심판신탁을 선언하는 3인칭 복수의 엘리트 지배층이 되고 원래 주어로 인지했던 “한 사람과 그 아버지”는 동사의 목적어로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본문은 “그들은 한 사람과 그의 아버지를 저당권 상실로 이끌며”로 읽을 수 있다. 이 구절은 “법정의 저당권 상실 심사에 끌려나온 한 사람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케 해준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한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도덕적 타락을 표현하는 정황이라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못한 표현이고, 그런 윤리적 타락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란 표현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이례적으로 “한 사람과 그의 아버지”란 표현을 구사하였다. 이런 구문은 세대간 계승을 암시한다. 이제 이 본문은 한 농가의 가장이 채무 때문에 법정적 판결에 따라 부모 시절부터 세습해오던 가산(family property)을 일시에 전부 잃어버리는 위기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토지, 생계, 가정, 소유 그리고 사회적 위치는 3인칭 복수로 표현된 엘리트 지배층이 주도하던 집약농업 정책의 결과로 시장경제에 내몰려 대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갚지 못해 급기야 저당권 상실을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토지통합을 당하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황을 묘사한다.

토지의 몰수 조치! 이것이 본문이 원래 전하려는 의미였다면 이 구절의 하반절에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란 표현 역시 단순히 윤리적 타락을 경고

20) Gesenius, Friedrich Wilhelm, Kautzsch, Emil Friedrich, and Cowley, Sir Arthur Ernest,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10), §122q.

하는 맥락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 야웨의 이름은 고대 이스라엘의 토지 정착 전승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땅이 야웨의 선물이며 그 땅을 공평히 분배하여 경작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신앙고백이요 세계관이었다(참고, 레 25:23; 여호수아서의 토지분배 기사). 그런데 8세기에 이르러 소수의 엘리트 지배층은 가난한 대다수 농부의 경제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대부를 주고 저당 잡힌 그들의 소유지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저당권 상실로 이끌고, 강제로 토지통합을 강행하여 거대한 영지(estates)를 만들어 나갔다. 아모스는 이런 사회경제적 정황이야말로 부자간의 성 문란 행위보다, 더욱더 야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만행에 해당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한 가장과 그의 아버지에게 저당권 상실을 선고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4. 아모스 4장 3b절

MT והשלכתם ההרמונה

LXX καὶ ἀπορριφήσεσθε εἰς τὸ ὄρος τὸ Ρεμμαν λέγει κύριος ὁ θεός

NRSV and you shall be flung into *Harmon*

TNK and flung into *the refuse heap*

TEV You will be dragged *to the nearest break* in the wall and thrown out

이 구절을 『개역개정』은 “너희는 하르몬에 던져지리라”로, 『표준개정』은 “너희는 하르몬에 내동댕이쳐질 것이다”로, 『공동번역』은 “너희는 ... 거름더미에 던지리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문제는 “하르몬”이다. 『개역개정』을 원문 그대로 음역하고 있는 까닭은 그 단어의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다른 번역들과 달리 유대인성서와 공동번역은 이 단어를 “거름더미”로 읽고 있다. 여기서 “하르몬으로(ההרמונה)”란 표현을 본문 비평적으로 고찰하여 본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읽기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본문비평은 본문 전수과정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단어를 읽은 고대의 칠십인역 사본들은 상이한 독법의 증거를 보여 준다. 칠십인역의 알렉산드리아 사본(A)은 렘만(ρεμμαν)으로, 프리어 사본(W)은 람만(ραμμαν), 루시안 개정(L)은 아르마나(αρμανα), 에프라임 사본(C+)은 에르모나(ερμωνα)로 읽었다. 아킬라역도 에프라임 사본을 따라 에르모나(ερμωνα)로 읽는데 비해, 심

마쿠스역본과 페시타와 타르굼은 모두 하르메니안(Ἀρμενίαν)으로 읽었다. 고대의 번역본들이 읽은 히브리어 대본(Vorlage)을 역추정하여(retrovert) 읽어본다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렘만(רמן), 프리어 사본은 램만(רמ), 루시안 개정은 하르마나(הרמנה), 에프라임 사본은 하르모나(הרמונה), 그리고 심마쿠스역과 페시타와 타르굼은 각각 하르메니안(הרמנין)이 된다. 여기서 고대의 서기관들과 번역자들은 히브리 자음 멤(מ), 헤(ה), 와우(ו)를 읽다가 착시 현상 때문에 원래의 대본을 잘못 읽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세 자음들을 외관상 다른 유사한 자음들과 착각하였고 심지어는 중자탈락(haplography)을 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관찰을 단서 삼아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를 재구성해본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본문 훼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① 하르 마드메나(הרמנה) -> 하(ה)와 마(מ), 레쉬(ר)와 달렛(ד)을 착각하고 레쉬(ר) 하나의 자음만 읽은 결과, 마드메나(הרמנה)의 달렛(ד)을 생략하여²¹⁾ 결과적으로 하르 마메나(הרמנה)로 읽음
- ② 하르 메나(הרמנה) <- 두 개의 멤(מ) 중 하나를 탈락하여 읽음²²⁾
- ③ 하르모나(הרמונה) <- 레쉬(ר)를 착각하여 두 번 읽되, 그것을 다시 와우(ו)로 착각하여 와우(ו)를 멤(מ)과 눈(נ) 사이에 삽입하여 읽음²³⁾
- ④ 하르 하르모나(הררמונה) <- 시작하는 음소 하르(הר)를 중복필사.²⁴⁾ 와우(ו)를 모음으로 보고 축약. 이 어구가 장소를 표기한다고 판단.
- ⑤ 하하르모나(ההרמונה) <- 다시 처음 하르(הר)의 레쉬(ר)가 중복된 것을 발견하고 이 레쉬(ר)를 제거. 서두의 헤(ה)가 두 번 반복되는 형태를 간직하여 지명으로 읽음.

이상은 원래 ①의 히브리 원문을 다섯 단계에 걸쳐 현재의 ⑤로 다르게 읽어간 과정을 보여준다. 문맥으로 볼 때 ⑤의 지명(“하르몬으로”) 읽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이 단어의 본래 읽기는 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마드메나(הרמנה)는 동사(רמ) 어근 불분명. 아랍어에서 ‘준비하다, 개선하다, 거름지대를 표시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1) “거름더미를 버리는 곳, 거름 구덩이”(사 25:10)를 의미하거나, 2)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지파의 지명(사 10:31)을 일컫는다.²⁵⁾ 지명일 가능성을 제외시키면 이 단

21) F. Delitzsch, *Die Lese- und Schreibfehler im Alten Testament* (Leipzig: Walter de Gruyter, 1920), 104.

22)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37-240.

23) Delitzsch., *Lese und Schriebfehler*, 109-111.

24)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40-243.

25) Brown, Francis,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52), 199.

어의 의미는 “거름 구덩이”로 귀착한다. 따라서 문제의 단어 마드메나(מַדְמֵנָה)를 “거름더미로” 읽은 유대인성서와 공동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도 칠십인역은 동사(גָּלַשׁ)를 히필형으로 읽고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BHS의 비평장치의 제안대로 호팔형으로 읽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4장 3절은 “너희가 거름더미에 던져질 것이다”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렇게 할 때 전체의 맥락이 이해되는 순조로운 번역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거름더미를 단순히 악취 나고 불결한 장소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단어는 8세기의 정치 경제의 빛에서 다시 이해해야 한다. 거름더미란 농업 생산을 강조한 엘리트 지배층의 정서(pathos)를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착취를 언급하는 본문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주들(landlords)의 생산 강요에 희생당하는 대다수 농부들의 삶이 썩어 감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름더미에 지배층이 내던져질 것을 선언하는 이 신탁은 실컷 먹고 마시는 쾌락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 엘리트 지배층과 그들의 부인들의 삶이 이제 야웨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뀔 것이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신탁은 소수 엘리트 지배층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해주었던 출발점이요 농사의 풍요를 기약해주는 상징물인 거름더미가 그들의 삶의 귀착점이 되리라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또 다른 생산성 있는 미래를 위해 그들을 썩는 밀거름으로 삼겠다는 신적 의지를 내포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신탁은 다중적인 어의(multiple entendre)가 축적된 표현이다. 야웨의 이 심판선언은 정확한 인과응보(measure for measure)를 천명한다.

너희가 거름더미에 던져질 것이다.

5. 아모스 8장 5절

MT מָתִי יַעֲבֹר הַחֹדֶשׁ וְנִשְׁבְּרָה שֶׁבֶר וְהַשְּׁבֹת וְנִפְתָּחָהּ בָּרָא

LXX οἱ λέγοντες πότε διελεύσεται ὁ μῆν καὶ ἐμπολήσομεν καὶ τὰ σάββατα καὶ ἀνοίξομεν θησαυροὺς τοῦ ποιῆσαι μικρὸν μέτρον καὶ τοῦ μεγαλύναι στάθμια καὶ ποιῆσαι ζυγὸν ἄδικον

NRSV saying, “**When will the new moon be over** so that we may sell grain; and the sabbath, so that we may offer wheat for sale?”

TNK When will the new mon **be over** so that we may sell grain; and the sabbath, so that we may offer wheat for sale

TEV We can hardly wait for the holy days **to be over** so that we can sell our

grain. When will the Sabbath end, so that we can start selling again?

『개역개정』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공동번역』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표준개정』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 구절은 대개 아모스가 고발하는 엘리트 지배층 당사자들의 심정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된 종교적 축제일이기 때문에 상행위를 할 수 없어서, 이 절기들을 준수하는 동안에도 한시 바빠 시간이 흘러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마음껏 탐욕스런 상업 행위(여기서는, 창고의 곡식을 내다 팔기)를 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런 본문 읽기는 대다수의 학자들의 생각하듯이 구약성서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정신과 잘 합치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이나 월삭 준수에 관한 법령들은 대부분 제사장 문서에 속하며(일부는 계약법전과 신명기 법전에도 등장한다) 그것이 공동체의 성문법으로 명문화된 시기도 대략 포로기 혹은 포로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세기 중반 북왕국 이스라엘 사회에서 안식일과 월삭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즉각 발생한다. 이 구절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일의 성격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식일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은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²⁶⁾ 안식일은 시초에 단순히 노동에서 쉬는 날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 같다.²⁷⁾ 이 날은 휴일로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진행하던 모든 힘든 일들을 중단하였다(출 20:9f; 신 5:13f; 출 23:12; 34:21).²⁸⁾ 이 날을 “야웨의 날”로 규정한 출애굽기 19:10(יְהוָה יָבֹרֵךְ)은 의미심장하다. 흔히 이 구절을 제의와 연관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야웨 종교의 성격의 빛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안식일이 야웨의 것이다”란 표현은 이 날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진술이지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날로

26) 바벨론 기원설, 가나안 기원설, 겐족 기원설, 고대 이스라엘 기원설 등이 있다. 참고,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John McHugh, tran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475-479.

27)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482.

28) 특히, 십계명과 계약법전에서 그렇다.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9-10);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출 23:12);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쉴찌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찌며”(34:21).

파악되어서는 곤란하다. 유사한 용례를 레위기 25:23(לְיָמֵי הַשָּׁבָע)에서 읽을 수 있다. 이 구절은 땅을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땅의 신학적 의미를 확정짓는다. 만일 후자가 땅의 공평한 사용을 구현하려는 구절이라면, 전자는 노동하는 시간들로부터의 쉼을 신앙적으로 천명하는 구절로 이해해야 한다.²⁹⁾

정기적이고 정상적인 일과 노동을 멈추고 집 안에서 쉬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된다면 고대 농경사회의 농민들은 그런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열왕기하 4:23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를 제공해준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려고 나섰고, 이에 그녀의 남편은 “초하루(שַׁבָּת)도 아니요 안식일(שַׁבָּת)도 아니어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하고 반문한다. 이 구절은 농민들이 노동하던 옛세 동안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가정사를 처리하는데 안식일이나 월삭을 활용했음을 시사한다. 그 중에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그저 예배하는 날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렇게 노동에서 쉼을 준수(שמר)하던 날이 분명히 점차 거룩한(קדש) 제의의 날로 발전해갔을 것이다.³⁰⁾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에서 안식일이나 월삭은 관습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성서적 근거로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무난한 것 같다.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안식일을 자연발생적인 휴일로 본다면, 안식일이나 월삭 때에 금지된 것으로 이해해 온 상행위는 어떤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고대 농경사회의 농민들은 왕조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물물교환이나 상거래를 했을까?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의 시장(market)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섰을까? 모든 해석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민의 삶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했을 장날(market-day)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식일에 상행위를 금지하였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간다. 볼프(H. W. Wolff)는 다른 고대 사회에서 제 칠일을 노동이 금지되는 금기일이요 바로 그 날을 장날로 삼는 경우가 허다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오히려 상업 행위를 금지한 날로 삼았다고 설명한다.³¹⁾ 이런 주장의 근거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재고하는 아모스서 8:5이다.³²⁾ 그러나 일찍이 드보는 안식일을 시장 풍습과 연결시킨 적이 있다.

29) H. J. Kraus, *Worship in Israel: A Cultic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G. Buswell, trans. (Richmond, Virginia: John Knox Press, 1966), 80.

30) Kraus, *Worship in Israel*, 80.

31) H. W. Wolff, *Joel and Amo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326.

32)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I: From the Exile to the Maccabe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408; Wolf, *Joel and Amos*, 327.

안식일 제도는 오히려 거의 전 세계적인 휴일-축제-시장 풍습에서 잘 설명된다. 그런 풍습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다시 오는 장날이나 휴일이나 축제일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옛날 로마인들은 9일마다 ‘눈디내(nundinae, 九日場)’라는 장날 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중국 남서부의 톨로스-여인들은 6일마다 빨래와 바느질을 쉬었다. 이런 휴일 선택의 동기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동기가 있고, 이렇게 삼입될 휴일들은 자연히 일정한 규정과 금지령들을 초래하게 되었다.³³⁾

이 관찰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크게 유용하다. 사회과학적 해석자들은 이스라엘 사회를 발생학적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농경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이스라엘 사회에 준용을 가해서(*mutatis mutandis*) 사용한다. 왕조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장날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고 이 날을 안식일에 맞추어 사용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농부들은 6일 동안 기초 생계에 필요한 농업생산 활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하는 고역으로부터 이 안식일 하루의 여가를 이용하여 밀린 가정사를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해석자들의 견해와는 전혀 달리 왕조시대의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기적인 장날로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런 주장을 다각도에서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이 있다. (1) 촌락공동체를 이루었던 초기 이스라엘 사회의 농부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갖가지 고된 노동에 얽매었다. 그래서 이런 촌락공동체에 분규가 생기면 농부들이 밭일로 집을 떠나기 직전인 아주 이른 아침에 마을 법정이 서곤 했다. 8세기 유다에서 예언자 미가가 “침상에서 악을 피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찐저”(2:1)라고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는 마을 법정이 서는 새벽을 “날이 밝으면”이란 문구로 표현했다. 또 스바냐 3:5와 예레미야 21:12도 모두 법정이 열리는 시각을 아침으로 말한다.³⁴⁾ 이런 관습은 노동 집약적인 농부들의 삶에 노동 이외에 다른 일에 얽매일 여가가 없음을 반영한다. (2) 안식일이 제의적 삶을 구현하는 시간이었다면 지역별로 성소가 존재했던 요시아 왕 이전 시기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안식일과 지역성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농부들이 성소에 가서 종교예식을 치르는 날(안식일과 월삭 같은 날)

33) 『구약시대의 종교풍습』, 이양구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205-206;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480.

34) 참조, L. Kohler, *Hebrew Man* (New York: Abingdon Press, 1953), 127-50 ; K. W. Whitelam, *The Just King: Monarchical Judicial Authority in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79), 185-206, 219-220.

에 필요한 물물교환을 통하여 상업사회의 원시적 형태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은 또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대 농경사회에 시간 절약형 관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 열왕기하 4:23의 맥락을 쉽게 이해시켜 준다. (3) 월삭은 고대 사회에 시장이 설 수 있게 해주는 전형적인 시간이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삭은 구약성서에서 안식일과 함께 준수되어 온 종교적 축제일이었다(사 1:13f; 호 2:13). 사울 왕은 월삭에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과 식사를 하였다(삼상 20:5). 그것은 정례적인 관습처럼 보인다. 다윗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매년제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만들어 낸다(삼상 20:6. 참조, 20:29). 그것은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므로 그야말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에 아주 적당한 구실이었다. 본문에서 월삭과 안식일이 모두 상행위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음은 이상의 논의에서 말하듯이 이 축제일이 제의는 물론이고 상행위와 함께 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시장을 보는 날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찰과 논의를 감안하여, 본문(암 8:5)을 다시 읽으면 아래와 같다.

월삭이 언제 돌아와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돌아와 우리가 밭을 내게 할꼬

안식일과 월삭에 관한 구약 본문의 역사비평적 이해와 사회과학적 관찰을 이용하여 월삭과 안식일을 장날로 간주할 경우, 본문의 히브리어 동사 야아보르(יָאָבֹר)는 “지나다, 끝나다(come to an end, to be over)”라는 의미보다 “지나가다, 돌아오다(come to pass, return, occur)”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본문은 엘리트 상인들이 월삭과 안식일 동안 금욕적 하루를 가까스로 참아내면서 그 다음 날에 벌일 장사를 계획하는 모습의 묘사가 아니다. 월삭과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에 상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곡식을 사러 오는 도시 주변의 촌락 농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라. 고대 농경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가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소수이고 농부들은 모두 바쁜 밭일에 일주일 내내 얽매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소수의 구매자로부터 얻게 될 적은 이익을 위해 마음을 쓰는 상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모스의 눈에 사회 전체를 심판할 만큼 큰 이슈로 비쳐졌을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번역은 고대 농경사회의 실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번역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 달에 한번 그리고 매주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날에 상인들이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행태를 고발하는 본문으로 읽는 우리의 번역이 고대 농경사회의 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모스의 신탁을 이런 각도에서 읽을 때 현재의 본문은 고대 사회의 사실성

을 더욱 충분하게 회복한다.

6. 나가는 말

아모스서의 난해구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6하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새 읽기> 돈을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의인을, 한 켤레의 신발로 계약한
추수를 수단 삼아(교환조건으로) 궁핍한 자를 팔며

2:7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새 읽기> 그들은 한 가장과 그의 아버지에게 저당권 상실을 선고하여 내 거
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3:4하 너희는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새 읽기> 너희가 거름더미에 던져질 것이다

8:5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새 읽기> 월삭이 언제 돌아와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

* 주요어

아모스서의 난해구절, 하르몬, 고대 농경사회, 야웨의 날, 안식일과 월삭.

<Abstract>

A New Translation of the Ambiguous Passages in the Book of Amos

Prof. Taek-Joo Woo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loy social scientific criticism to help in the understanding of ancient biblical texts that are too ambiguous to understand. A merit of this method in translating biblical passages is that it frees us from theological or dogmatic pre-understanding, which restricts our interpretative horizon, by recognizing the text as a social product. Ambiguous passages to be considered are Amos 2:6b, 2:7c, 4:3b, and 8:5. Among them, a new reading of Amos 4:4b results mainly from textual criticism, defined as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textual transmission.

The new translations are as follows. English translations are taken from NRSV.

(1) Amos 2:6b(/8:6a)

Because they sell the righteous *for silver* and the needy *for a pair of sandals* ->
Because they sell the righteous **for the exchange of money** and the needy **for the exchange of harvest in contract for a pair of shoes**

(2) Amos 2:7c

father and son go in to the same girl, so that my holy name is profaned -> **they bring a man and his father into foreclosure**, so that my holy name is profaned

(3) Amos 4:3b

and you shall be flung into *Harmon*

-> and you shall be flung into **the refuse heap**

(4) Amos 8:5

When will the new moon *be over* so that we may sell grain; and the sabbath, so that we may offer wheat for sale? -> When will the new moon **occur** so that we may sell grain; and the sabbath, so that we may offer wheat for sale?